

## 칼빈의 경건 사상

안 인 섭  
(충신대학교)

### 들어가는 글

세속주의의 물결이 사회를 범람하면서, 영혼의 존귀함, 인격의 고결함, 가치 있는 영적 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대는 영적 공황상태와 같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현대는 개인이 아무리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 개인의 의지와 관계없는 문제 상황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발리의 폭탄 테러나 미국의 9.11테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평화로운 삶은 타자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좀더 넓게 생각해 보면, 최근에 발생되었던 동남아의 쓰나미, 미국의 허리케인, 그리고 파키스탄의 대 지진 등에서 수만의 생명이 희생된 사건들과, 조류 독감이나 광우병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삶은 필연적으로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개혁신학의 신학 체계를 통해서 살펴보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배타적으로 자아를 위하는 삶을 지향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자연을 보살피라는 인간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인류의 죄의 결과이다.

현 21세기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떤 면에서 보면,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

와 같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격변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대 기독교가 미래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유사한 역사적 격변기에 활동했던 위대한 교회의 선생(Doctor Ecclesiae)인 칼빈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16세기 종교개혁이 그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ad fontes의 정신으로 교부들 (Church Fathers)에게 물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소논문은 먼저 칼빈의 사상이 형성되었던 16세기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핀 후에, 그가 말하는 경건의 개념과 경건 훈련에 대해서 고찰하게 될 것이다.

## I. 칼빈의 경건 신학의 배경

### 1. 중세말의 변화

칼빈의 경건은 그가 활동했던 16세기라는 시대의 역사적, 신학적, 영적 배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16세기를 일괄하자면 중세가 해체되었으나 근대 세계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었던 과도기였다. 철학적으로는 보편보다는 개체의 가치가 중시되고 있었고, 신성로마제국이라는 제국의 환상이 무너지면서 유럽의 각 민족국가가 각성되면서 시민의식이 싹트고 있는 맥락이다. 신학적으로 중세 말부터 일기 시작한 어거스틴주의가 부흥하고 있었다.

### 2. 네덜란드의 근대적 경건(Devotio Moderna)

이런 흐름속에서, 칼빈의 경건의 신학의 배경과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데 이펜터(Deventer)와 쾰블레(Zwolle)에서 시작되어 독일과 프랑스와 스위스 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종교개혁의 먼 안내자가 되었던 근대적 경건(Devotio Moderna)을 주목하게 된다.<sup>1)</sup> 저명한 교회사가 엘스마(Prof. Dr. A.J. Jelsma) 교수에 의하면 네덜란드의 근대적 경건 운동이 지향했던 공동체

운동과 종교개혁이 시도했던 개혁 사이에는 큰 유사성이 존재한다.<sup>2)</sup>

칼빈의 경우, 그의 청년기 몽테규(Montaigu) 대학 시절, 네덜란드의 하우다(Gouda)에 있는 공동생활 형제단에 유학을 다녀왔던 John Standonick의 제자인 Noel Beda를 통해서 어거스틴과 근대적 영성의 저서들을 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프랑스인으로서 근대적 경건에 깊이 관여했었던 Jacques Lefevres d'Etaples과, 당시 네덜란드의 Liege(현재는 벨기에)의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훈련을 받았고, 그 정신을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구현하려고 시도했던 Johann Sturm을 통해서, 칼빈은 근대적 경건의 정신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다.<sup>3)</sup>

이 근대적 경건 운동은 1) 하나님과의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2) 하나님 절대 의존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강조하며 3) 경건의 토대로서 성경을 묵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 근대적 경건은, 4)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을 호소하는 5) 공동체적 영성 운동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에는 지식과 영성의 간격이 존재했는데, 칼빈에게 와서 비로소 그 간격이 채워지게 되었으며, 칼빈은 근대적 경건의 순수한 주관주의는 피했다.<sup>4)</sup> 또한 창조 세계에 대한 칼빈의 관점은, 세상으로부터 멀리하려고 했던 근대적 경건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의 그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보인다.<sup>5)</sup>

칼빈의 깊이 있고 폭넓은 경건의 개념에는 어거스틴의 영향이 깊이 자리한다.

- 
- 1) L.J.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Atlanta: John Knox Press, 1974), pp. 12-47.
  - 2) A.J. Jelsma, *Frontiers of the Reformation: Dissidence and Orthodoxy in Sixteenth-Century Europe*(Aldershot/Brookfield USA/ Singapore/ Sydney: Ashgate, 1998), pp. 9-24.
  - 3)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대한기독교서회, 2000 pp. 29-34. W. Balke, *Ongang met de reformatoren*(Kampen: De Groot Goudriaan, 1992), pp. 94-100.
  - 4) L.J.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Atlanta: John Knox Press, 1974), pp. 122-129.
  - 5) 근대적 경건의 대표자인 Thomas a Kempis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보라. P. van Geest, *Thomas a Kempis(1379/80-1471): Een studie van zijn mens-en godsbeeld*(Kok: Kampen, 1996), pp. 149-155.

즉 어거스틴이 경건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해석해 내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한 인간의 종교적 윤리적 책임을 논하고 있는 바처럼, 칼빈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인간의 책임 윤리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 II. 칼빈의 경건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pietas)은 그의 신학 사상의 한 측면이라기보다는 그의 전체 신학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의 헌정사에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는 자신의 목적이 경건한 삶을 위함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나의 의도는……종교에 열심있는 사람들이 참된 경건의 생활을(ad veram pietatem)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sup>6)</sup>

그런데 이런 경건은 지식(eruditio)과 연결되어 있다.<sup>7)</sup> 기독교 강요의 초판(1536년)에 의하면, 교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sup>8)</sup> 기독교 강요의 마지막 판(1559년)은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결합된 것을 말하는데, 이 사랑은 그의 은혜를 깨달아 앎으로써 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sup>9)</sup> 즉 칼빈에 의하면, 진정한 경건이란, 성경이 제시해 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인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에 토대를 둔다고 할 수 있으며, 그의 이 관점은 기독교

6) Calvin, *CO 1(Institutes: 1536)*, p. 10. “Tantum erat animus rudimenta quaedam tradere, quibus formarentur ad veram pietatem qui aliquot religionis studio tanguntur.”

7) Calvin, *CO 31.(Comm. Ps.)*, pp. 11-35.

8) Calvin, *CO 1(Institutes: 1536)*, p. 27.

9) “Pietatem voco coniunctam cum amore Dei reverentiam quam beneficiorum eius notitia conciliat.” Calvin, *CO 2*, p. 34. (*Institutes*, 1,2,1.),

강요 1559년판까지 시종일관 지속되고 있다.<sup>10)</sup>

## 1. 하나님과 자신을 앎: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 1) 하나님 앞에서 자아의 발견: 경건의 출발점

칼빈의 경건 개념의 출발점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가 되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조물 된 인간이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coram Deo*) 가능하다. 이것은 칼빈의 경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며, 이점에 있어서 칼빈이 말하는 경건의 내향성과 인격주의는 근대적 경건(*Devotio Moderna*)과 일면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칼빈의 경건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해된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본래적 정체성을 아는 지식은 바로 칼빈이 말하는 경건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 2) 예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예배는 경건생활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바른 태도를 말하는 칼빈의 경건은, 진정한 지식과 진정한 예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sup>11)</sup> 칼빈의 시편 주석을 보면, 인간 존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간의 타락을 언급하자마자 바로 인간의 중생을 강조하는 독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칼빈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피조물이 서로 분리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sup>12)</sup> 피조물인 인간은 범죄함으로

10) Calvin, *Institutes*, 1,1,1-2.

11) L.J.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Atlanta: John Knox Press, 1974), pp. 100-102.

12) H. Selderhuis, *God in het midden: Calvijns theologie van de Psalmen* (Kampen: Kok,

그 본래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일한 중보자인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위치하게 된다.

칼빈에 의하면,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예배”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이고, “경건을 보존”하는 방법이다.<sup>13)</sup> 그러므로 칼빈이 가르치는 경건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로 표출되는 것이다.

### 3) 성경과 성령

칼빈의 경건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 즉 창조주요 구속주인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다.<sup>14)</sup> 성경은 칼빈이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치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다.<sup>15)</sup>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말씀 앞에 열려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의 교제를 지탱해주는 틀이 된다. 그런데 칼빈에 의하면, 이 경건의 교과서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sup>16)</sup> 칼빈은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경건으로 인도한다고 보는 것이다.<sup>17)</sup>

2000), pp. 69-98.

13) Calvin, *Institutes*, 2,8,8; 4,20,15. Comm. 2 Tim, 2,2. cf. 이수영, “칼빈에 있어서의 경건의 개념,” *교회와 신학* 27집, 1995, pp. 353-354.

14) Calvin, *Institutes*, 1,6,1.

15) Calvin, *Institutes*, 3,2,6.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을 사용하지든지 또는 자신의 힘만으로 하시든지 간에 자신에게로 끌고자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신다.”

16) L.J.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Atlanta: John Knox Press, 1974), pp. 154-166.

17) Calvin, *Institutes*, 1,7,6; 1,9,6.

#### 4) 경건과 신학의 통합

이미 앞에서 논의된 비와 같이, 칼빈의 전 신학적 체계가 경건을 지향하면서 세워졌기 때문에, 칼빈의 특징 중 하나는, 그의 신학이 경건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고 통합되어 있다는 점이다. 칼빈의 경건은, 신앙과 삶, 그리고 신학과 경건의 통합이라는 통시적인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18)</sup> 심지어 칼빈은 복음에 대해서 유창하게 말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고 생명의 교리”라고까지 말하고 있다.<sup>19)</sup>

칼빈이 이해하는 복음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나, 정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경건의 개념도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강변하고 있다.

복음의 효력은 마음속 가장 깊은 감정에까지 침투해서, 영혼 안에 자리를 잡고, 인간 전체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철학자들이 하는 종교보다 백배나 더 심각한 영향을 주어야 한다.<sup>20)</sup>

칼빈이 볼 때, 복음은 인간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 그 영혼 안에 닻을 내린 후, 그 인간의 전체적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에 의하면, 신학은 경건과 분리될 수 없으며, 신앙과 삶은 통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 2. 타자를 위한 사랑

칼빈의 사상에 있어서, 경건은 그의 전체적 신학이 밀고 가는 지향점이었으며, 삶과 통합되는 개념이었다. 그의 경건은 일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18) 정승훈, *종교개혁과 21세기: 어거스틴과 포스트모던 사이에서*, 대한기독교서회, 2003, pp. 155-157.

19) “그러므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넓은 지식과 유창한 말주변으로 무엇이냐고 말하던 간에, 그리스도를 아는 체하는 그들의 태도는 거짓이며, 공정하지도 않다는 것이 증명된다.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니고 생명의 교리이기 때문이다.” Calvin, *CO*, 2, p. 503. (*Institutes*, 3,6,4).

20) Calvin, *CO*, 2, 503. (*Institutes*, 3,6,4).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관계된다. 이와 동시에 칼빈의 경건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상호 관계에까지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칼빈은 타자를 위한 사랑은 구원을 위한 원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그러나 이웃을 위하는 사랑은 칼빈에 의하면, “중생의 확실한 상징”이자 “성령의 특별한 열매”가 된다. 다른 표현으로 진술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구속함을 얻음으로 왜곡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데 이것은 곧 본래적 자아를 발견한다는 의미인데, 결국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이란, 타자를 위한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자신의 이기심을 포기하고 타자를 유익하게 할 때” 비로소 자아의 중생이 “증명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sup>22)</sup>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은, 칼빈에 의하면, 타인을 사랑하는 삶으로 표현되며 이것은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강령이 되는 것이다.<sup>23)</sup>

### 1) 타자를 위한 삶

칼빈은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주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출생 근원을 함께 창조하심으로, 인간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고 타자를 자아보다 더 포용하도록 하셨다고 설명하고 있다.<sup>24)</sup>

21) 이수영, “갈벡에 있어서의 경건의 개념,” *교회와 신학* 27집, 1995, pp. 346-348.

22) Calvin, *Comm. 1 John*, 3: 16.

23) 그리스도인의 삶과 경건을 자아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2편(1539년)부터 비로소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동생활 형제단의 사상에서 훈련을 받았던 Johann Sturm의 영향과, 스트라스부르그에서 행했던 난민 목회 경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칼빈의 스트라스부르그 시절 이후의 기독교 강요 개정판들에서부터 이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칼빈의 신학과 경건이 얼마나 긴밀하게 통합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24) Calvin, *Comm. Gen.* 1: 28. “.....단순히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함께 자녀 생산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렇게 하여 땅을 다시 채우게 하려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직접 많은 인간들로 이 땅을 채우게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나와서 상호 협조하려는 소원이 더욱 간절해 지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한 그분의 뜻은 각자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보다 더 포용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칼빈은 이웃을 돌아본다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며,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25)</sup> 칼빈은 다음과 같은 강력한 어법을 사용하면서 타자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자아를 포기하고, 타자를 위해서 자아를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다면, 바울이 사랑의 일이라고 가르친 그것을 행할 수 없다.<sup>26)</sup>

물론 인간이 자신을 포기하고 타자를 위해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신체 기관들은 그 기관 자체를 위해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각각 다른 기관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제시한다. 그리고 나서, “경건한 사람도…… 교우들을 위해서 일할 줄 알아야 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심 전력하는 이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자기를 돌보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sup>27)</sup>

## 2) 타자를 위한 청지기

칼빈은 여기에서 한결음 더 나간다.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은사를, 타자의 이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전체는 우리의 이웃들의 유익을 위해서 분배하라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위탁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규칙이나,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한 더 타당한 권고를 생각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sup>28)</sup>

25) Calvin, *Institutes*, 3,7,4.

26) Calvin, *Institutes*, 3,7,5.

27) Calvin, *Institutes*, 3,7,5.

28) Calvin, *Institutes*, 3,7,5.

칼빈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이며, 우리의 청지기 직책에 관해 보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그런데, 이 청지기의 유일한 자격 조건이 중요하다. 칼빈에 의하면 “사랑”이다. 칼빈은 이 사랑이란 타자와 자아의 유익이 일치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시해야 할 것은, “타자”를 위한 삶이라는 것이다.<sup>29)</sup>

### 3) 타자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

그러면 칼빈은 타자 안에 충분하고 완전한 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자를 사랑하라고 말했을까? 칼빈에 의하면, 다름이 아닌 타자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타자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성경의 교훈에 의하면, 우리는 사람 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대해서 경의와 사랑을 표시하라고 한다.<sup>30)</sup>

칼빈에 의하면, 타자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타자를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이유이다.

그렇다면, 타자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타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할까? 칼빈은 이 질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만날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그를 돕지 않을 이유가 없다.……가령

---

29) Calvin, *Institutes*, 3,7,5.

30) Calvin, *Institutes*, 3,7,6.

그가 '비루하고 무가치하다'고 하자. 그러나 높으신 주께서는 낮은 그에  
게 자기의 아름다운 형상을 주셨다. 그 사람에게 봉사할 아무런 의무도  
우리에게 없다고 말하자.....그에게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조금도 수고  
해 줄 가치가 없다고 말할 것인가? 그러나 그를 우리에게 추천하신 하나  
님의 형상에는 그대 자신과 그대의 전 소유를 바칠 가치가 있다.<sup>31)</sup>

칼빈에 의하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타지를 바라볼 때 타자 안에 비천함  
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타자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을 형상을 주시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 아름다운 형상에 마음이 이끌려서 타자를 동정  
(compassion)하라는 것이다.<sup>32)</sup> 요컨대, 칼빈이 말하는 경건은 타자의 환경  
여부에 관계없이 그를 동정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이다.

#### 4) 거룩한 공동체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은 공동체 속에서 회복되게 된다.  
자아의 영적인 삶은 타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칼빈의 제네바 사역에서 쟁점이었던 권징의 문제도, 타락하여 오염된 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타자를 통하여 자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오염되는  
것을 보호함으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칼빈의 취지였다.  
실제로 칼빈이 제시하는 권징(discipline) 혹은 파문(excommunication)에  
대한 세 이유는, 첫째 권징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불명예스럽게 되는 것을  
막고, 둘째, 권징을 받는 사람 자신을 교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타인의 타락을 예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33)</sup> 칼빈에게 있어서 그의 교회론과

31) Calvin, *Institutes*, 3,7,6

32) Calvin, *Institutes*, 3,7,5.

33) W. Balke,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tr.) W. Heynen(Grand Rapids: Eerdmans, 1981),  
p. 223. W.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p. 219.

관련된 권징에 대한 개념은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자 했던 칼빈의 열망의 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 3. 창조 세계를 돌봄

칼빈의 경건 신학의 시종일관한 기초는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과 그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지식이었다. 이 경건의 지식에 근거하면, 첫 인간이 하나님께 부여 받은 사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부성애적 사랑으로 돌보라는 것이었다.<sup>34)</sup>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의 일원으로 선택된 것이었다.<sup>35)</sup> 따라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지키는 인간의 노동은 인간에게는 본질적인 사명이었고 축복이었다고 칼빈은 해석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규모 있게 관리하면서 후손에게 넘겨주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스리며 지키라는 조건으로 그 땅이 인간에게 주어졌다고 한다…… 이 노동은 정말로 즐거운 것이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이었으며, 모든 고생과 지치는 것은 완전히 배제된 노동이었다…… 모세는 추가하여, 아담에게 동산을 지키는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의 조건으로 우리들의 손에 맡기신 모든 것을 소유하고

34) Calvin, *Comm. Gen.*, 1:28.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사용하는 면에서도 그분의 선하심과 ‘부성애적인’ 돌보심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단련시켜야 된다…….”; *Comm. Gen.*, 1:28.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는 데서 그는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는 또한 그 후에 인간은 땅을 개발하도록 명령을 받았으며 과일들을 먹으라고 허락을 받았다고 추가하고 있다…….” 한편, 창조의 영으로서의 칼빈의 성령에 대한 관점은 첫째 우주적인 차원과, 둘째 인간의 생명의 차원, 그리고 셋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삶의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성령의 우주적 사역에서 칼빈의 정치윤리와 생태 윤리가 도출될 수 있다. 다음을 보라. 정승훈,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대한기독교서회, 2000, pp. 235-66.

35) Calvin, *Comm. 1 Cor.*, 15:27.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그 조건은, 그것들을 규모 있고 적당하게 이용하고 만족하면서 남게 될 모든 것을 잘 돌봐야 한다는 조건이라야 한다. 밭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매년마다 과일을 따먹게 되며, 그렇게 하여 그의 관리 소홀로 땅에 해를 입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대로 그것을 지손에게 넘겨주어야 될 것이며, 아니 더 잘 개발된 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겨야 될 것이다. 그러면 그는 방종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보존되기를 요구하시는 것들을 남용함으로 자신을 부패시키지 않을 것이다.<sup>36)</sup>

칼빈에 의하면, 인간에게 맡기신 창조 세계를 남용하는 것은 인간 자신을 부패시키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이 세상의 통치자라기보다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존재인 것이며,<sup>37)</sup> “다른 피조물들과 적절한 유대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인간의 본래적인 삶의 조건들이 규정되었던 것이다.<sup>38)</sup>

칼빈의 해석에 의하면, 만약 첫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본래적 지위를 상실하지만 않았더라면, 심지어 동물들과 인간 간에도 친밀한 관계가 지속될 수 있었다.<sup>39)</sup> 그러나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했던 창조 세계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인간의 범죄에 기인한다. 그래서 칼빈은 실제로는 “우리(인간)가 저주를 받고 있다”고 탄식했던 것이다.<sup>40)</sup>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범죄로 파생된 생태계의 파괴와 그것에 대한 칼빈의 “통탄”이 얼마나 큰 것인지는 다음의 칼빈의 논조에서 역력히

36) Calvin, *Comm. Gen.*, 2:15.

37) Calvin, *Comm. Gen.*, 2:16.

38) Calvin, *Comm. Gen.*, 2:18.

39) Calvin, *Comm. Gen.*, 2:19.

40) Calvin, *Comm. Gen.*, 3:17.

드러난다. 칼빈은 먼저 자연계에 발생하는 좋지 못한 현상들은 죄의 결과라고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땅에서 생산되는 모든 불건전한 것들은 이 땅의 자연적인 본래의 소산이 아니고 단지 죄로 말미암아 기원되는 부패물들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sup>41)</sup>

그러면서 칼빈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조 세계의 비참한 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절제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땅이 그렇게 불모지로 화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분노를 역력히 보아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죄를 통탄해야 될 것이다.…… 인간의 죄악이 증가함에 따라서 남아 있는 하나님의 복들이 점점 감소되고 손상되고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이 회개하지 않으면 분명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보다 정확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인간의 엄청난 수효가 기근과 기타의 무서운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sup>42)</sup>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질서함과 비참함에 빠져 있을 때, 이 세상을 본래의 아름다운 상태로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칼빈은 이에 대한 유일한 대책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며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매우 명쾌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이 저주를 제거함으로써 세상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데 있는 만큼 완전한 상태로의 회복이 그가 해야 할 당연한

41) Calvin, *Comm. Gen.*, 3:18.

42) Calvin, *Comm. Gen.*, 3:18.

일인 것이다.

한마디로 선지자는 이러한 비유를 들어 바울이 뚜렷이 주장하는 점, 곧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무질서한 상태에서 함께 모으는 데 있다는 동일한 진리를 가르쳐 준다. 그리하여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서 온갖 해로운 것을 추방하시며 그 동안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이 세상의 과거의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요약된다.<sup>43)</sup>

이상에서 명확하게 밝혀진 칼빈의 가르침은 다음과 같다. 칼빈의 경건 개념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보라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 받았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 본래적 위치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 인간뿐 아니라 전 창조 세계에 그 비참한 결과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전 우주적 구속 사역으로, 모든 피조물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sup>44)</sup>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본래적인 정체성을 발견하는 칼빈의 경건의 신학은, 우리의 시야를 창조 세계로 까지 확대해 주는 신학적 포괄성을 보여주며, 바로 이점이 여러 종교개혁자 중에서 칼빈의 신학이 갖는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다.

### III. 칼빈의 경건 훈련 :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으로서의 훈련

칼빈에 의하면, 구원은 회복의 역사이다. 인간의 경우, 죄로 인해서 파괴되

43) Calvin, *Comm. Is.*, 11:6-7.

44) Calvin, *Comm. Col.*, 1:16.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올려 그는 사람뿐 아니라 천사들도 주관하시는 분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시는 분이라고 한다.”

있던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거듭남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우리 안에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서 과연 그것이 원래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말에 의하면, 영적인 증생은 오직 그와 똑 같은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sup>45)</sup>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칼빈에 의하면, 창조 세계의 회복이다. 따라서 칼빈이 말하는 경건 훈련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주어진 본래적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이 회복을 위한 훈련의 개념에서 칼빈은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근대적 경건과 결별한다. 즉, 근대적 영성이 세상으로부터 철회하는 방법으로서의 훈련이었다면, 칼빈의 경건 훈련은 오히려 세계 내에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를 훈련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된다.

## 1. 자기 부인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자기 부인을 위치시키고 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적이고 외적인 과정으로 나타난다.

첫째 내적인 면에서 보면, 자기 부인이란 자아의 삶의 주권을 자아가 아닌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자아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을 극복시키는 것이다.<sup>46)</sup> 하나님의 첫 창조 이후, 인간의 범죄로 원죄가 인간의 전 삶에 전적으로 침투했으며, 타락한 인간은 자아의 이기적인 정욕을 쫓아 살게 되고 말았다. 따라서 자기 부정이란, 피조물 인간의 죄된

45) Calvin, *Comm. Gen.* 1:26.

46) Calvin, *Institutes*, 3,7,1-3

정욕을 죽이는 것과, 그 욕구를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자아의 육신의 정욕을 지배할 수 있도록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내적인 측면인 것이다.<sup>47)</sup>

이 칼빈의 자기 부인은 근대적 경건의 그것과 차별되는데, 근대적 경건은 자기 부인을 완전을 향한 수단으로도 이해하는 모호함이 있는 반면, 칼빈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으로서 자기 부인을 사용한다는 점이다.<sup>48)</sup> 칼빈에 의하면, 이런 자기 부인의 과정은, 일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sup>49)</sup>

한편 칼빈의 자기 부정은 의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한 현세적인 재물들을 향유하고 섬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며, 세속적인 욕망을 굴복시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과도한 금욕과 극단적인 방종 모두를 배격한다. 현세의 삶과 문화는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아의 정욕을 위해 남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타자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다.<sup>50)</sup>

## 2. 십자가를 짊어짐

칼빈에게 있어서 “경건한 마음”은 보다 높이 그리스도의 “제자 됨”의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즉, 경건함은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칼빈은 보았던 것이다. 칼빈이

47) Calvin, *Institutes*, 3,7,2.

48) L.J.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Atlanta: John Knox Press, 1974), pp. 122-129.

49) Calvin, *Institutes*, 3,6,3; 3,7,2.

50) Calvin, *Institutes*, 3,10,1-6. 여기에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De Doctrina Christiana*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인 *frui* 와 *uti*와 유사한 개념을 기독교 강요 3권 10장에서 이용하고 있다.

말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란, 곧 고난과 노고 속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제자인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갖도록 정해졌다. 그러므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이끌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게 됨으로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강조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더 받을수록, 그리스도와 더 확실한 사귄을 보장받는다고 칼빈은 말한다.<sup>51)</sup>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우리는 오히려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sup>52)</sup> 자아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깨끗하게 없어지게 되며, 결국 자신의 무능을 깨닫게 되어 더욱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칼빈에 의하면, 자아를 버리고 타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소망은 십자가를 짊어짐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와 순종을 훈련시키는 것이다.<sup>53)</sup>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수 있게 된다.<sup>54)</sup>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십자가는 자아 중심의 고립된 삶에서 타자를 사랑하는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자아에 대한 일종의 “치료법”이 된다는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동시에 십자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도 된다. 칼빈은 의를 위한 박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이 따를 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다.<sup>55)</sup>

---

51) Calvin, *Institutes*, 3,8,1.

52) Calvin, *Institutes*, 3,8,1.

53) Calvin, *Institutes*, 3,8,4.

54) Calvin, *Institutes*, 3,8,4.

55) Calvin, *Institutes*, 3,8,8.

그러나 칼빈은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순종으로 가득 차서 모든 반항하는 감정을 갈무리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할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의 십자가의 고통을 굳게 이겨내야 한다고 보았다.<sup>56)</sup>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 고난을 받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구원을 마련하시고 계시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sup>57)</sup>

그러므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면서 글을 맺고 있다. 십자가를 짊어 짐으로 고난을 인내하고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자아에게 유익하게 동의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타자를 위한 삶과 사랑은 결국 자아를 위한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이며, 자아는 타자와 연합되는 것이다.

### 3. 종말론적 삶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현세에 집착하지 않고 내세를 바라보게 하셨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인간은 현세 생활의 불안을 느끼게 될 때, 내세의 소망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타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사회 속에서 종말론적인 비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다.<sup>58)</sup> 경건한 사람들은 이미(already)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not yet)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건강한 긴장감 속에서 살아간다.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내에서 절제하고 근검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에 합당하게 살아간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의미 없이 인생을 방황하지 않도록 하셨다.<sup>59)</sup> 이것이 칼빈의 직업 소명론이며 직업 의식이다. 따라서,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다.<sup>60)</sup>

56) Calvin, *Institutes*, 3,8,10.

57) Calvin, *Institutes*, 3,8,10.

58) Calvin, *Institutes*, 3,9,3-6.

59) Calvin, *Institutes*, 3,10,6.

60) Calvin, *Institutes*, 3,10,6.

##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칼빈의 경건의 신학은 그의 모든 신학이 지향하는 목표가 된다. 칼빈의 경건은 네덜란드의 근대적 경건(Devotio Moderna)이나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경건을 개인의 인격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하고 있다. 그의 경건의 사상 저변에는, 창조주요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지식이 존재하며, 따라서 칼빈은 경건을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예배를 정점으로 해서, 타자에 대한 사랑과 창조 세계에 대한 돌봄으로 풀어내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칼빈 자신의 경건의 개념에 기초하여, 그는 경건을 사회적, 경제적, 생태학적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신학적 포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다른 신학자들과 비교할 때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칼빈은 경건을 개인의 영성에 배타적으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사회적 개념으로 극단적으로 확대시키지도 않았다. 양 극단적인 경건의 경향성 사이에서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경건과 신학의 통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점이 16세기를 살았던 칼빈의 경건의 신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경건의 교과서”가 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칼빈(Calvin). 경건(piety). 하나님 형상(Image of God). 타자(others).

Selderhuis, H. *God in het midden : Calvijs theologie van de Psalmen*.  
Kampen : Kok, 2000.

이수영. "갈렙에 있어서의 경건의 개념." *교회와 신학*, 27. 1995.

정승훈. *종교개혁과 21세기: 어거스틴과 포스트모던 사이에서*, 대한기독교서회,  
2003.

\_\_\_\_\_. *종교개혁과 칼빈의 영성* 대한기독교서회, 2000.

## Abstract

### Calvin's Thoughts on Piety

In Sup An(Chongshin University)

For Calvin, piety(pietas) is more than an aspect of his theological thought. Calvin's piety is a goal at which his total theological system aims. Calvin's concept of piety, thus, integrates the whole dimensions of the human life. In Calvin's thought the true piety is founded upon the Bible which tells about the knowledge of God and man's identity. In this sense, the starting point of Calvin's teaching of piety is related with God who is the Creator and with a man who is a creature. This leads us Calvin's emphasizing point that the intimate relation with God is important in Calvin's thought on piety. Because man was created according to God's image, it is the foundation of Calvin's thought on piety to know man's own identity. In addition, on the basis of the faith in man's dependence on the creator, Calvin's piety extends its meaning to the relation among human beings in this world. Therefore, Calvin's view to the practice of piety becomes more

positive and practical, as a service in this world not beyond this world. Calvin's piety starts with man's inner relation with God, just as Devotio Moderna of the Netherlands in the fourteenth century or other reformers of the sixteenth century did. However, Calvin goes further in that he explains the meaning of piety as loving others and serving the created world, while Calvin still recognized man's worship service of God as the climax. Especially, Calvin's thought on piety shows a large theological scale, so that it has an implication to be interpreted with the social, economic and ecological meaning. Calvin didn't use piety in the exclusively personal context, nor did Calvin extend its meaning to the radically social dimension. Between the extreme two viewpoints of piety, Calvin walked his own way with a sound balance. It was an integration of the piety and the theology. This might be the reason why Calvin's teaching about piety is still helpful to the modern Christians who are living in the 21st century.